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5월 6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 6(수) **오전 06: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5. 5(화)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담당과장	김성열 과장(044-203-4210)	담 당 자	장미연 사무관 (044-203-4212) 형건우 사무관 (044-203-4216)

◇ 코로나 이후 산업전략 추진 ◇

○ 산업부,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대응 과제 제시

· 세계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K-방역·K-바이오 글로벌화, 비대면 산업 육성
·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전략,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수립

○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본격 가동으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과제>

구분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대응과제
보건환경	간헐적 감염병	감염병 빈발	❶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상품화 ❷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글로벌 조달	로컬 조달	❸ GVC 재편 → 청정 생산기지 구축
경제환경	대면 석유수요 증가	非대면 석유수요 감소	❹ 비대면산업 육성 ❺ 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
기업경영	비용절감, 효율	재고확보, 회복력	❻ 기업활력 촉진+사업재편 활성화
사회가치	개인·효율	연대·협력	❼ 기업간 연대 및 협력
교역환경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보호무역	❽ 글로벌 협력 리더십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반 1차회의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5.6일(수) 10:00 성윤모 장관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비경중대본) **1차 회의"**를 개최

【산업전략 대화 개요】
· 일시/ 장소 : 5.6(수),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 1층 BC룸
· 참석자 : 산업부장관, 관계부처(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등 12개), 산·학·연 전문가 등 총 23명
· 논의사항: ①그간 산업·기업 지원대책 점검 ②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정책 방향

□ 금번 산업대화는 ①**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旣발표 **산업·기업 지원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

○ 또한, ②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

□ **바이오·방역, 비대면 경제, 글로벌 공급망** 등 코로나 이후 산업 변화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향후 산업전략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산업부장관 모두발언 주요내용】

◈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 이후를 5大 변화로 진단하고 8大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

1 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그간 정부대응

□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EU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

* 1분기 경제성장률 : (美) △4.8%(연율, 전분기대비), (中) △6.8%(전년동기비), (EU) △14.4%(연율, 전분기대비)

○ 우리 경제도 그동안 버티던 수출이 4월 △24% 감소하고, **자동차·철강·정유 등 일부 주력 업종의 매출과 생산**이 크게 위축

○ 우리 수출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우리 수출에 더욱 큰 어려움** 예상

* 국가별 수출 비중('19년 기준) : (美) 13.5%, (中) 25.1%, (EU) 9.7%

□ 그간 정부는 ❶**재정·금융·세제 지원**, ❷**무역금융 36조원 신규 공급 등 수출지원**, ❸**자동차·항공 등 업종별 지원**을 포함한 총 245조원 규모 전방위 대책을 마련

○ 소상공인·중소기업만이 아니라 중견·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 특히, 최근 확정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

□ **기존 대책 집행상황 점검,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하는 등 위기극복의 중심축 역할로서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운영 예정

2 포스트 코로나 경제 및 사회 여건

□ **전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초래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의 변화상을 제시

❶ **(보건환경)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 → **감염병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로 **방역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개발 레이스 시작**

* 빌게이츠 : "5大 기술혁신이 바이러스 전쟁 승리의 선결과제" (빌게이츠, 4.23)
❶ 치료제 개발, ❷ 백신개발, ❸ 진단 기술, ❹ 접촉자 추적 기술, ❺ 보건·방역 정책

○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이 **低임금 매력을 상쇄** → 향후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

* 장 폴 로드리그 : "글로벌 경제 이중구조化 → 생필품 국산화 But 첨단제품 글로벌화 유지" (美 호프스트라대 교수, 4.20)

❷ **(경제활동)**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非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며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 **非대면 활동 크게 증가**

* 에릭 존스 : "교육・산업・경제 전반에서 비대면 대세 전망" (존스홉킨스대 교수, 4.21)

○ 전반적 수요 둔화로 인한 **실업증가와 저유가 기조 장기화** 가능성

❸ **(기업경영)**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이 일상화**되고 **여유재고·인력 유지비용을 감수**하는 등 **'低비용' 효율중심주의 기업경영 퇴조**

* 애덤 투즈 : "경영자는 고비용 시대를 대비하라" (美 컬럼비아대 교수, 4.13)

○ 비용 부담, 부채 증가로 **투자 여력 감소** 및 **긴축 경영 확산 우려**

* 마크 카니 : "기업가치의 상당부분은 현금흐름 상실로 파괴될 것" (前 英 중앙은행 총재, 4.16)

❹ **(사회가치)** '개인과 효율' 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solidarity), 공정(fairness), 책임(responsibility) 등의 가치 부각**

* 유발 하라리 : "최악의 수(手)는 서로 분열 하는 것" ('사피엔스' 저자, 3.20)

❺ **(교역환경)** 경제의 지역블록화로 **국가간 무역장벽 부활가능성**이 있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 퇴조 가속화**

* 헨리 키신저 : "시대 착오적 성곽시대 사고가 살아날 가능성" (前 美 국무부장관, 4.4)

* 알렉스 캘리니코스 : "코로나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 (런던대 킹스칼리지 교수, 3.24)

3 포스트 코로나 변화대응 8大 산업전략

보건환경

❶ (GVC 재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 유턴활성화, 핵심품목 관리, 밸류체인 핵심기업 유치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 구축

❷ (산업현장 리셋) 감염병 발생시에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방식 확산 → 산업 현장의 복원력(resilience) 극대화 지원

* 생산라인 재배치, '로봇+인간' 작업방식 설계, 산업별·기업별 방식 표준화 등

○ 산업 지능화를 통한 생산차질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

❸ (K-방역·K-바이오 육성) K-방역, K-바이오가 K팝·기생충에 이은 新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화

○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활용 → 글로벌 백신생산의 중심으로 도약

* 국내 백신 위탁생산시설 : 미생물실증지원센터(화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안동)

경제활동

❹ (非대면산업 육성) 5G, 디지털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

○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 관련 투자 확대

❺ (저유가대응) 에너지 소비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으로 低유가를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전환의 기회로 활용

○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력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 점진적 축소

* (철강) 수소환원 제철, (석유화학) 고부가 화학 소재, (정유) 바이오 연료 등

기업경영

❻ (기업 활력·투자 촉진)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투자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 촉진

○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과 신산업 분야 진출 활성화

*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핵심부품 제조, (철강) 컬러강판 등 고부가 강판 등

사회가치

❼ (경제주체간 연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협력, 異업종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업종간·기업간 **한국型 산업 연대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적극 창출**

* (업종내) 파운드리 개방 및 상생팹 구축,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등
(업종간) 신산업 분야 공동진출, 퇴직 인력 교류, 분쟁 중지, 해외 동반 진출 등

【 시스템반도체 상생팹 개요(안) 】

· 내용 : **중견 파운드리 기업**이 **신규 생산라인*** **일부를 국내 중소 팹리스 기업에 개방**
* 월 3만장 규모 웨이퍼 생산라인 구축 → 이 중 월 1만장 이상을 국내 팹리스 기업이 이용
· 생산 칩 :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이미지센서(CIS), 전력반도체(PMIC) 등
* (DDI) Display Driver IC, (CIS) CMOS Image Sensor, (PMIC) Power Management IC

교역환경

❽ (글로벌 리더십) 방역모범국이자 **제조 강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보호무역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 주창**으로 글로벌 논의 주도

○ **기업 필수인력 예외 입국 표준모델 선도,** 무역·투자에 관한 **추가적 장벽 설정 중단**(standstill) 등을 **양자 및 다자협의체**를 통해 제안

【 입국허용 등 성과사례 】

· **한·싱·캐·호·뉴 5개국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공동 선언문** 발표 (5.1)
*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3.26) 후속조치
· **중국** →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시행 (5.1) → 입국시 2주간 격리조치 면제
· **헝가리** → 한국 등 6개국 기업인 **입국 전면 허용** 발표 (4.30)
· **베트남** → 기업인 출장단 **340명 입국** (4.29) 등

【 향후 계획 】

□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시리즈로 준비**

○ 상반기 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 비대면산업 육성,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진출, 산업·통상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 등을 준비

○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적 전략인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마련** (하반기)

*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산업구조 친환경 전환, 기업활력 촉진+사업재편, 기업간 연대 및 협력 등 포함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장미연 사무관(☎ 044-203-4212), 형건우 사무관(☎ 044-203-42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전문**

Ⅰ. 최근 경제 상황

최근 확진자수가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등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안정세**에도 **경제 전시**(戰時)**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은 지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납니다.

1분기 소비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6.4%,**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3.5% 감소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4%**를 기록하였습니다.

소비 및 기업 경기전망이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도 좋지 않은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CSI : ('20.1월) 104 → (2월) 97 → (3월) 78 → (4월) 71 ('08.12월(68) 이후 최저, 역대 2번째)
BSI : ('20.1월) 76 → (2월) 65 → (3월) 56 → (4월) 52 ('09.2월(43) 이후 최저)

그동안 잘 버텨왔던 **수출**도
4월에는 마이너스 △24.3% 감소(전년동월대비)하였습니다.

글로벌 수요 급감과 함께 국제 유가하락이 겹치면서
자동차(△36.3%), **철강**(△24.1%), **석유제품**(△56.8%)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 미국, EU**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우리 수출에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국가별 수출 비중('19년 기준) : (美) 13.5%, (中) 25.1%, (EU) 9.7%
* 1분기 경제성장률 : (美) △4.8%(연율, 전분기대비), (中) △6.8%(전년동기비), (EU) △14.4%(연율, 전분기대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은
1분기 마이너스 △4.8%(年率,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우리의 1위 수출시장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최근 28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6.8%)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확실한 방법인 백신**의 경우,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2차, 3차 대유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폴 오핏(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 : "(백신 개발에) 1년 반 목표는 터무니없이 낙관적"(CNN 3.31보도)

Ⅱ. 그간의 정부대응

그간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2월부터 경제장관회의는 물론
최근까지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
재정, 금융 등 **총 24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규 36조원의 무역금융을 포함하는 **수출 지원책**과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정유 등 **업종별 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조원의 채권안정펀드 조성,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프라이머리 CBO(P-CBO) 발행 지원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습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우리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확고한 정부의지를 담은 정책들입니다.

다만 정부의 과감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산업부와 13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비상경제중대본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을
본격 가동합니다.

그간 발표된 지원책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없는지
관계부처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길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다양한 부처가 모인만큼
앞으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만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BC)과 이후(AC)가 극명하게 다를 것이라는 전망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정책 패키지를
잘 준비해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모인 산업반의 주요 부처들이 힘을 모으면,
방역 선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경제 재도약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Ⅲ. 코로나 이후의 경제 여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불확실성(uncertainty)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도 더딘 경기회복으로
세계적 소비시장인 미국의 실업률은
2026년이 되어서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1]도 있습니다.

경제가 재개되더라도 가계의 소득감소, 기업도산의 증가로
경제활동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가 과거보다 위축되는
소위 "90% 경제"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2]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발한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과거와는 다른 상황,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상은
크게 **다섯가지 측면에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

1) 미국 CBO(미국 의회예산처)는 경제가 재개되더라도 '21년 미국 성장률은 2.8%에 그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실업률은 9.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그 이후 미국경제가 2.8% 수준으로 성장 시 2026년에나 돼서야 코로나 이전으로 실업률 복귀(the Economist, 5.2).

2)"The 90% Economy, life after lockdowns"(the Economist, 4.30).

❶ 먼저, **보건환경 측면**입니다.

세계적으로 감염병 재발 및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및 생산 현장도 이를 감안하여 재편될 것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중단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을 경험**하면서,
핵심 공급망을 본국 가까이로 이동시키는 등
'덜 효율적'이더라도 **'덜 위험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생산 현장도 **상시 방역을 대비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생산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복원력이 높은 생산방식을 모색할 것입니다.

❷ **경제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
온라인 등을 활용하는 이른바 **비대면 경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비대면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학교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규 채용절차도 화상면접으로 진행되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문들에서
비대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월 수출절벽 속에서도
컴퓨터, 데이터저장장치(SSD) 등
非대면 산업 연관품목의 수출[3]**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비대면 소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 지속과 함께**
석유소비 감소로 **저유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❸ 다음은 **기업 경영 측면**의 변화입니다.

전염병에 대비한 기업의 **비상계획 수립이 필수화**되고,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여유재고와 비상인력 등 **상비군을 유지**하는
고비용 경영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은 늘어나되 매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경우
기업의 신규투자 여력이 위축될 것이 우려됩니다.

❹ **사회적 가치 측면**의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세계적 감염병 창궐이라는 공동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개인과 **효율**보다는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 공정, 책임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 그리고 협력업체와 **상생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3)“ * 비대면 관련 품목 4월 수출 증감률 : 컴퓨터 99.3%, SSD 254%

❺ 마지막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지역화·블록화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휴전 중이던 무역전쟁을 다시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前) 미국 국무부장관 **헨리 키신저**의 발언처럼
"시대착오적 성곽시대 사고의 **부활 가능성**[4]**"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Ⅳ.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준비되지 않은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준비하고 맞이하는 변화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저력을 확인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5大 변화에 맞추어
변화될 세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❶ **먼저, 보건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현장 재편을 지원하고
K-방역과 K-바이오를 세계적 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

4) "The pandemic has prompted an anachronism, ***a revival of the walled city*** in an age when prosperity depends on global trade and movement of people."(4.3, WSJ)

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①**'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던 기간 중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첨단 생산라인은 가동을 멈추지 않아
국제 언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했던 경험을 토대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신남방 등 전략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핵심기업의 국내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감염병 대응력을 높여
②**'셧다운**(shutdown) **없는 생산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방식의 도입과 확산을 통해
산업현장의 복원력(resilience)**이 극대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성이 입증된 ③**K-방역과 K-바이오를**
세계적 브랜드와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진단키트·워크스루, 접촉차 추적조사(contact tracing) 등
성과가 입증된 **K-방역 시스템의 세계진출**을 추진하고,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활용해
K-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백신생산의 중심으로 키우겠습니다.

❷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비대면 산업 육성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앞선 디지털 인프라 및 5G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기회의 산업인 ④**非대면 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의 핵심 **에듀테크**,
감염병 확산 시 수요가 커지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등
非대면 산업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석유수요 감소와 저유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⑤**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산업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공장과 건물의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경제 활성화로 **에너지 신산업의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❸ **기업 경영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는
⑥**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신산업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부담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미래 먹거리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체질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❹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원자이자 중개자로서
⑦**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의 다양한 모범사례**가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생태계 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휴와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여
한국형 상생연대 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겠습니다.

❺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⑧**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코로나 사태로 국가간 이동이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가운데에도
우리 기업인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출장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일부 성공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K-방역**을 앞 다퉈 배우려 하는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방역 모범국이자 제조 강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보호무역의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를 주창하고
관련 의제도 우리가 주도해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이후 **경기부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국 등 **주요국 시장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Ⅴ. 향후 계획 및 마무리 말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5大 변화에 대응하는 **각 분야의 전략과 정책**을
여기 함께 모인 **부처들과 최대한 협업해 시리즈로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중에는
①**글로벌 공급망 재편,** ②**비대면산업 육성,** ③**K-방역・K-바이오 글로벌 진출,** ④**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협력 리더십** 등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경제 중대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 부처들의 지혜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의 산업질서 변화**에 대해
종합적 전략과 대응을 담는
가칭「**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5]도
앞서 말씀드린 작업결과를 종합해 제시 할 계획입니다.

오늘 다양한 방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의 변화에 대한 비전과 담론,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산업 전략에 대해
건설적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산업반 1차 회의와
포스트 코로나 관련 전문가 토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산업구조 친환경 전환, 기업활력 촉진+사업재편, 기업간 연대 및 협력 등 포함

첨부2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제1차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개요

1 개 요

○ 일시 : '20. 5. 6(수) 10:00~11:30

○ 장소 : 대한상의 회의실(1층 EC룸)

○ 참석 : 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관련 産學硏 전문가 등 23명

* (정부) 농림부, 환경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기재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고용부, 복지부 등
(민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 소장, SSG닷컴 대표,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유버 대표, 닷밀 대표, 서강대 허윤 교수, 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 대한상의 부회장 등

○ 논의내용 : ①분야별 **旣 발표 대책 추진 점검**

②**코로나19 이후** 경제·산업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 방향**

2 세부 진행일정(안)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05	(5′)	모두 발언	
세션 Ⅰ		< 산업·기업 위기대응 점검 >	
10:05~10:30	(25′)	旣발표 대책 추진 현황 등	관계 부처
세션 Ⅱ		<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 방향 >	
10:30~10:35	(5′)	(발제) 코로나19 이후 경제·산업 변화 전망	
10:35~11:27	(52′)	자유 토론	
11:27~11:30	(3′)	마무리 발언	

첨부3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 **해외 주요 석학 등의 발언 정리** (국내외 언론 인터뷰, 개인 SNS 등)

◈ 자유방임 주의가 퇴조하면서 **세대에 걸친 정치·경제 격변 초래**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유무역 후퇴, 고비용 경영 도래**도 특징

1 바이러스와의 전쟁 :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경쟁

◈ **빌게이츠 : "5大 기술혁신이 바이러스 전쟁 승리의 선결과제"**
* ❶ 치료제 개발, ❷ 백신개발, ❸ 진단 기술, ❹ 접촉자 추적 기술, ❺ 보건·방역 정책
* 빌게이츠 개인 블로그 (4.23)

◈ **헨리 키신저: "바이러스는 국경을 인식하지 않으며** 개별 노력은 한계"
* 前 미국 국무부 장관 (4.4)

□ **코로나19 재유행**과 **다른 종류의 감염병 창궐**에 대한 우려

○ **올 가을 내 재유행 가능성**이 크며 전시상태 상황 빈발 가능

○ 세계적 **방역 시스템 정비 및 백신·치료제 개발 레이스 시작**

* 95% 이상 효과가 있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
*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진단키트, 접촉 추적기술 보급도 중요

□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세계적 정보교류와 공동대응 노력 필요**

* 의료장비의 생산 및 보급, 백신 및 치료제 등의 생산라인을 독점 대신 人類化

2 세계 경제의 지역화·분절화 : 세계화 퇴조

◈ **마크 카니 : "코로나19 위기는 세계 경제의 파편화를 가속화"**
* 前 영국 중앙은행 총재 (4.16)

◈ **장 폴 로드리그 : "글로벌 경제는 이중구조化**
→ 생필품 국산화 But 첨단제품 글로벌화 유지"
* 美 호프스트라대 교수 (4.20)

◈ **헨리 키신저 : 시대 착오적 성곽시대(城廓時代) 사고가 살아날 가능성**
* 前 미국 국무부 장관 (4.4)

□ **(자유무역 퇴조)** 백신 개발까지는 **여행 및 글로벌 교류 제한 지속**
→ 경제가 지역블록화 되면서 **국가간 무역장벽 부활 가능성**

□ (GVC 변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 →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

○ 신흥국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低임금 매력이 상쇄되며 늘어진 공급망을 본국 가까이 이동
→ 특히, 생필품과 의료용품 등의 국내생산 노력이 확대될 전망

○ 기술력이 높은 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글로벌화 계속
→ 기술력 外 투명성까지 갖춘 한국은 첨단제품 글로벌 생산기지化 기회

* (반도체) 메모리 칩,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자동차) 수소차

3 非대면 경제 본격 활성화 : 악수(握手)의 종말

◈ 에릭 존스 : "교육·산업·경제 전반에서 비대면 대세 전망"
* 존스홉킨스대 교수 (4.21)

□ (비대면 확산) 온라인 경제활동에 소극적인 중장년층·국가 등도 코로나19 계기로 비대면을 경험하고 효용성 확인 → 비대면 경제 본격 확산

□ (디지털 인프라) 비대면경제의 기반인 반도체, 5G, 통신장비 등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세계적 투자 및 수요 확대 전망

4 저유가 기조 장기화 : 에너지 산업 변화

◈ 골드만삭스 : "코로나19,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 (3.31)

□ 공급과잉 + 원유수요 지속 감소 → 에너지 기업의 과감한 혁신 요구

□ 기후변화 대응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석유가격 급락으로 수익성 악화

○ 정유·에너지 기업은 재생에너지 진출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 가속

5 효율 중심주의 후퇴 : 고비용 경영 시대 도래

◈ 애덤 투즈 : "포스트 코로나, 경영자는 고비용 시대를 대비하라"
* 美 컬럼비아대 교수 (4.13)

◈ 마크 카니 : "기업가치의 상당부분은 현금흐름 상실로 파괴될 것"
* 前 영국 중앙은행 총재 (4.16)

□ (비용증가) '低비용' 효율중심주의에 근거한 기업 경영 퇴조 전망

→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여 비상계획 수립이 활성화되고,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재고 및 인력, 예비병실, 바이러스 대응팀 등 상비군 유지 비용 감수

* 충분한 재고 확보비용, 생산 내부화에 따른 임금 상승, 직원 건강보험료 부담 등

○ 기업은 테일 리스크(tail risk)*를 관리하고 과학자 판단 존중

* 통계분포 상 끝(꼬리) 부분으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시 충격 강도가 높은 리스크

□ (성장제약) 비용부담 증가, 투자 여력 감소 및 보수적 경영 확산 우려

6 상호 의존하는 사회 : 경제주체간 연대 강화

◈ 유발 하라리 : "최악의 수(手)는 서로 분열 하는 것"

* '사피엔스' 저자, 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 (3.20)

□ 위기대응을 위해 개인과 효율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❶연대(solidarity), ❷공정(fairness), ❸책임(responsibility) 등의 가치 부각

* 팬데믹이 끝나면 기업들은 "전쟁기간 동안 무엇을 했나"로 평가 받을 것 (종업원 대우, 협력업체 관리, 고객응대 등)

7 정부역할 확대 : 新자유주의 퇴조

◈ 알렉스 캘리니코스 :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

* 런던대 킹스칼리지 교수 (3.24)

◈ 유발 하라리 : "코로나19로 빅 브라더 사회 앞당길 수도"

* '사피엔스' 저자, 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 (3.20)

□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역할 확대

□ 전염병 대응을 이유로 밀착감시 사회(surveillance state) 도래 가능

첨부4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기본방향**

◇ 포스트 코로나 질서재편에 적극 대응하면서 선도국 부상

◇ 코로나19로 확인된 우리 강점 활용 →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전략 추진

【핵심 추진과제】

1 보건환경	❶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상품화 ❷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 생산라인 재배치, '로봇+인간' 작업방식 설계 등 ❸ GVC 재편 → 청정 생산기지 구축
2 경제환경	❹ 비대면산업 육성 *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 ❺ 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 * (철강) 수소환원 제철, (정유) 바이오 연료 등
3 기업경영	❻ 기업활력 촉진 + 사업재편 활성화
4 사회가치	❼ 기업간 연대 및 협력 * (업종내) 파운드리 개방 및 상생펩 구축 (업종간) 신산업 분야 공동진출, 퇴직인력 교류 등
5 교역환경	❽ 글로벌 협력 리더십 * 기업인 예외입국 표준모델 선도, 추가 무역장벽 설정 중단 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질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 전략인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마련**